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2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4,12-16, 22-26)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향,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4,12-16, 22-26

룩셈부르크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산림감시원 대장이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정육점을 찾아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추한 옷차림을 한 늙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무엇을 살 것인지 물을었습니다. 그 여인은 “끼니가 떨어졌는데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약간의 고기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하고 말했습니다. 산림감시원 대장은 친구인 정육점 주인이 과연 그녀에게 고기를 줄 것인지 궁금해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어이가 없어 그 여인을 훑어보며 “내가 당신에게 고기를 주면, 그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겠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미사 한 대를 바치겠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육점 주인과 산림감시원 대장은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그 여인을 비웃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그 여인에게 “좋소. 그럼 당신이 가서 나를 위해 미사를 드리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미사의 값 어치만큼 고기를 주겠소.”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인은 돌아와서 “당신을 위하여 미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쓰여진 종이쪽지를 건네면서 정육점 주인에게 “당신을 위해 미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속으로 비웃으며 장난삼아서 저울의 한 쪽에 그 종이쪽지를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는 아주 작은 뼈 한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주인은 작은 뼈를 내려놓고 그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부인을 비웃었던 정육점 주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큰 덩어리 고기를 저울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울이 고장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울을 살펴보았지만 저울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은 빈정대면서 “저울이 움직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착하신 부인, 내가 양고기 다리를 통째로 올려놓기를 바라는 거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큰 고기 덩어리가 있던 저울 쪽에 양고기 다리를 통째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울은 이번에도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정육점 주인과 산림감시원 대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은 부인에게 비웃었던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부인, 제가 이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고기를 매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육점 주인은 신앙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을 지켜보던 산림감시원 대장은 가톨릭에 입교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를 드리는 열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깊은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그의 두 아들은 각각 예수회와 예수성심회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스타니슬라우스 신부는 “저는 예수성심회 신부이며, 그 산림감시원 대장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어내는 미사성체의 값어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지요?

(수원교구 6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6월 24일에는 성탄반 예비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많은 예비 신자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1가정 1인 선교를 실천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탈출기 32,1-40,38

◆ 성경 퀴즈

*탈출 32,1-35까지 읽고 () 안에 알맞은 낱말이나 답을 써 넣으시오.

1. 시나이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물려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 ()
2.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탈출 32,9-10)
3. 모세는 두 ()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이 쓰여 있었다.
4.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수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을 산 밑에 내던져 ().
5.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제사지내는 모습은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 몇 번째 계명을 어긴 행위인가? ()번째 계명

*탈출 33,1-23 과 40,1-38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 ‘만남의 천막’의 쓰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으시오.(탈출 33,7-11)
()
7.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를 베푸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을 베푸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나 내 ()을 보지는 못한다. (탈출 33,18-19)
8.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 두 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의 살갓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9. 그때에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이 성막에 가득 찼다. (탈출 40,34)
10.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여정에서 그들과 성막을 밤과 낮으로 지켜준 것은 ()과 ()이었다.

*도전 문제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처음의 ‘증언관’과 새 ‘증언관’의 차이에 대해서 ()안에 답을 적으시오.

탈출 31,18: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관을 그에게 주셨다.

탈출 34,28: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을 판에 ()하였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나의 ‘순종의 동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과연 감사와 사랑인지, 압박감과 두려움인지, 신자로서의 체면과 형식적 의무감에서인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서로 짧게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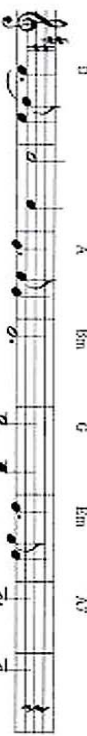
정수
현정
현정
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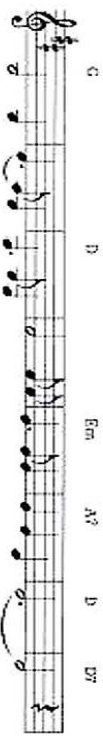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종교하고 봉사하자 세상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가 역반공동체